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7월 5일(일) 제1596호

여호수아, 약속의 땅으로



7~8월 차세대사역본부 여름 캠프 및 아웃리치 여름 캠프 1만여 명, 아웃리치 59개 팀 1,090명 참가

온누리교회 차세대사역본부의 여름사역이 본격 시작됐다. 7월과 8월 성경 인물 '여호수아'의 삶과 신앙을 배우고 닮아가는 여름 캠프와 아웃리치가 이어진다. 여름 캠프에는 국

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차세대 113개 부서 1만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아웃리치에는 국내 27개 팀 566명, 해외 32개 팀 524명이 참가한다.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유아부·유치부)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초등부·소년부) 여름 캠프는 '여호수아, 약속의 땅'을 주제로 열린다. 7월 4일(토)부터 8월 9일(수)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본당과 온누리청소년센터, 이천 자연나라, 포천 영광수련원, 피노키오청소년수련원, 너리굴 문화마을 등지에서 성경 퀴즈,

적용 놀이, 체험 활동 등을 한다. 예수님의꿈 아이와 꿈이자라는땅이 대상이다.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여름 캠프는 '돌파'를 주제로 7월 17일(금)부터 8월 4일(화)까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서해안청소년수련원, 도교원연수원, 양평숲속작은나라, 원주힐링파크 등지에서 진행된다. '두려움을 돌파하라', '불가능을 돌파하라', '망설임을 돌파하라'를 소주제로 찬양과 설교, 주제 강의, 기도회 등을 한다.

차세대 여름 아웃리치는 7월 3일(금)부터 8월 30일(일)까지 국내외에서 팀별로 진행한다. 국내 팀은 전라남도 담양, 경기도 부천, 충청남도 보은, 강원도 홍천 등지에서 노방 전도, 성경학교, 어른신 섬김 등의 사역을 한다. 해외 팀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일본, 몽골 등지에서 어린이 캠프, 노방 전도, 환경 미화 등을 한다.

한편, '2026 교사 기도회'가 지난 7월 1일(수)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믿음으로 걷는 교사들'을 주제로 열렸다. 차세대 교사와 부모, 성도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설교는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가 '요단강 도하'를 주제로 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

714연합기도대성회, 7월 17~18일 잠실학생체육관

'714연합기도대성회' (이하 714기도회)가 7월 17일(금)과 18일(토)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 (사 62:6)를 주제로 막 오른다. <역대> 7장 14절 말씀에 기초해 매년 7월 열리는 한국 교회 연합 기도 운동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714연합기도운동 홈페이지(714praymov.org)나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올해 714기도회에서는 이를 동안 총 5개 세션이 진행된다. 7월 17일(금) '세션 1'에서는 이기용 목사가 설교하고, 안광복 목사, 이해영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한다. 찬양은 신길교회 찬양팀이 한다. '세션 2'에서는 이인호 목사가 설교하고, 김도훈 목사, 김형석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한다. 찬양은 더사랑의교회 찬양팀이 찬양한다.

7월 18일(토) 이어지는 '세션 3, 4, 5'에서는 문대원 목사, 이재훈 목사, 이정규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기도회는 이요한 목사, 류성룡 목사, 이지훈 목사, 남경우 목사, 이종필 목사, 김경석 목사가 인도한다. 찬양은 온누리교회 찬양팀과 아이자야 61이 한다. 문의: 02-868-8425



예수 따라 열방으로!

여름 아웃리치 국내외 323개 팀 6,379명 참가

2026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올해 7월과 8월 이어지는 여름 아웃리치에는 성인공동체, 대학청년부, 차세대 국내외 323개 팀 6,379명이 참가한다(7월 3일 기준). 국내외 사역지에서 교회 보수, 선교사 위로, 군장병 초청잔치, 현지교회 연합집회 등을 한다. 미디어사역본부에서는 '2026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8월 31일(월)까지 올해 여름 아웃리치 영상(릴스, 숏츠 등)을 60~90초 분량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제작 영상은 온누리교회 인스타그램 계정

(@onnuriacts29) 태그, 다이렉트 메시지(DM),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6)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이메일(onnurismart@gmail.com) 제출도 가능하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간증과 사진을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까지 간증(한글 파일 기준 글자 10포인트로 A4 용지 1장)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제출한 간증은 7~8월 <온누리신문>에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 홍하영 기자

수원 창립 23주년 감사예배

7월 5일 오전 9시, 11시 30분

수원온누리교회가 창립 23주년 감사예배를 '하나가 되다 우리가 되다' (요 17:21~23)를 주제로 7월 5일(일) 오전 9시와 11시 30분 명지대학교 채플관 예배당에서 '세대 통합예배'로 드린다. 7월 7일(화)~9일(목) 오후 7시 30분 기흥 ICT밸리 1층에서는 말씀집회가 열린다. 장경철 교수(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가 메시지를 전한다.

지난 6월 28일에는 공동체 리더십과 사역팀

별 찬양인도자 및 싱어를 대상으로 리더십 예배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김승훈 목사(수원온누리교회 담당), 장동원 목사(예배본부 본부장), 황병원 장로(예배포럼 및 예배학교 장로)가 강의했다.

수원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비전을 품고 다음세대와 이주민 등을 섬기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독후감 대회 '온누리썸머북케이션' 개최

8월 23일까지 온누리도서관 및 우편 제출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여름방학 기간(7~8월)에 독후감 대회 '온누리썸머북케이션'을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청년부 이상 온누리교회 소속 성인 성도다. 대상 도서는 온누리도서관에서 대출하거나 두란노서점에서 구매한 신앙 서적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8월 23일(일)까지 독후감을 작성해서 온누리도서관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3215-3110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자주 뒤로 밀리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닐지 모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사귀이 내가 해야 하는 의무로만 느껴진다면 번거로운 숙제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만나고 싶은 분이려면 언제나 기쁘게 시간을 내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늘 “혼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은 일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35절).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변명이 힘을 잃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시고, 밤 늦도록 병자를 고치시고 맞이한 다음 날 새벽,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 홀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 기도 시간 직후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또 찾고 있었지만, 그 무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마을들로 향하셨습니다.

쫓기며 분주한 이유

본문에 나온 ‘그날 저녁 해 진 후에’라는 표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32~33절).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거나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일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지자 일제히 병든 식구와 친구들을 둘러업고 물러온 것입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모여든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면 아마 자정을 넘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경험하신 ‘문 앞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요청과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늘 처리해야 될 일, 응답해야 할 메시지, 채워줘야 할 기대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것들을 외면해서는 사회

속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을 살다 보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에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이 있고, 부르심에 충실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늘 같은 고백을 합니다. 긴급한 일에 중요한 일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휴대폰 알람 소리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알람은 늘 나중에 미룹니다. 우리의 손은 세상의 부름에는 항상 빠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없이 느립니다.

우리가 늘 급한 일에 쫓기고 분주한 데는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홀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무리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로 채우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로 도망치고, 관계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단둘이 있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과 무리에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압박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더 열심히’가 아니라 ‘물러남’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 나섰습니다(36~37절). ‘뒤를 살살이 뒤져 사냥하듯 추적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도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남는 가장 큰 유혹은 ‘대중의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고 따른다는 그 짜릿함을 좀처럼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삶의 모순이 나타납니다. 더 열심히,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분주함은 사실 도피일 때가 많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허영심 때문입니다. 둘째, 스스로 결단하기 싫어서 남이 정해주는 대로 떠밀려 사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허영심과 게으름 때문에 실상은 바쁘지 않아도 되는데 바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35절).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둡어득할 때’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장소도 강조합니다. ‘

외판곳으로 가서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육체의 피곤을 넘어서는 목마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갈망, 모든 상황에서 부르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큐티’ (Quiet Time)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외판곳’은 곧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광야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세 번 기록합니다. 첫 번째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인 이 새벽입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산으로 물러가 혼자 기도하시던 때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겔세마네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때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고 높이려 할 때마다 예수님은 도리어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홀로 앉으셨습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밀려드는 무리의 요구 앞에서 예수님의 답은 ‘더 열심히’가 아니라 ‘물러남’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과 보고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집중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의 요구 앞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의 박수가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며 언제나 사명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군중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이 중요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가 그분의 하루를 붙잡아 세웠습니다(38절).

예수님이 물러나서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을 거절하시고, 고난받음으로 이루시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무리를 거절하신 예수님의 물러남은 우리를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구원하기 위한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시기 위해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각오 위에서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결심에 기초하면 얼마 못 갑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물러나시며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끌어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적한 곳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열어주신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아낌없이 시간을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기를 쉬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비우셨고, 새벽마다 광야로 나가셨으며, 마침내 십자가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시간을 내어주신 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의 우선 순위가 교정됩니다. 매일매일의 큐티가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수행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우선 순위가 바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다시 정립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삶의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바로잡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한적한 곳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는 발걸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깊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가장 멀리 보냄을 받게 됩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는 땅끝을 향해 걸어가는 선교의 발걸음이 됩니다. 골방의 기도가 열방의 선교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쁘셨던 예수님의 삶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통해 열방의 선교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기쁘게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가 폭력적인 종교임을 증명하는가?

대화 중에 누군가가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가 사실상 폭력적인 종교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십자군 전쟁은 8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반론으로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을 기독교에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십자군 전쟁이 언급된다면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십자군 전쟁은 아무런 도발도 없었던 침략 전쟁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은 십자군 전쟁이 평화로운 무슬림들을 개종시키거나 학살하려는 데 혈안이 된 야만적인 그리스도인 무리가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았다. 무슬림들이 처음 팔레스타인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비교적 관대했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2등 시민으로 여겨지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 정부의 직책을 맡는 일 같은 것도 여전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예를 들어 칼리프 알하킴이 예루살렘의 성묘교회를 파괴했을 때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심각한 공격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성묘교회는 많은 사람이 예수의 무덤이 있던 곳으로 여기는 장소였

다. 그 이후 ‘셀주크 튀르크’라는 중앙아시아의 전투적인 민족 집단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다. 셀주크 튀르크는 어떤 종교든 새로 개종한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광신적이었다. 상황은 험악해졌다. 셀주크 튀르크는 중동의 그리스도인 주민들을 학대하고 박해했다. 그들은 예루살렘 순례를 막았고, 기독교 성지를 더럽혔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했다.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셀주크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 그 지역은 원래 비잔틴 제국의 일부였다. 비잔틴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20여 년이 조금 지난 뒤, 그들은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 셀주크를 막고, 그 땅을 되찾는 일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일이 십자군 전쟁의 계기가 되었다. 비잔틴과 십자군은 기독교의 중심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공격적이고 점점 더 폭력적으로 팽창하는 이슬람 세력에 맞서고 있었다.

둘째, 십자군은 기독교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는 그리스도인의 손에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는 확신으로 움직였다. 비잔틴은 제국의 영토 되찾기를 바랐다. 그러나 십자군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었다. 예수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도시 말이다. 그 도시는 그

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했고, 당시 예루살렘 순례는 중요한 기독교 관습이었다. 셀주크 튀르크의 손아귀 아래에서 그리스도인 시민들과 순례자들은 자주 괴롭힘과 박해를 겪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보면 이 상황을 다시 평가할 수 있다. 1700년대 영국이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정복했다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그들이 메카를 점령했을 뿐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순례도 막고, 무슬림 성지를 더럽혔다고 상상해 보라. 그들이 카바를 파괴했다고 상상해 보라. 무슬림 세계가 그것을 받아들였겠는가? 무슬림들이 메카를 되찾으려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겠는가? 그 시나리오가 사실상 십자군 전쟁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핵심을 이해하면 십자군의 동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십자군은 기독교의 기준이 아니다. 동기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십자군이 했던 많은 일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 잘못된 일들을 저질렀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관되지 않게 살고 있었다. 그들의 동기에 공감할 수 있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설령 그 행동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어떤 그리스도인도 십자군의 악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본받아야

할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종교의 가르침과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종교를 얼마나 잘 또는 얼마나 나쁘게 대표했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어떤 종교를 그 가르침과 일관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비로운 일도 아니고, 공정한 일도 아니다.

8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한 무리의 십자군을 기준으로 기독교를 판단하려 한다면, 이슬람도 오직 한 무리의 지하디스트들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기독교의 기준을 알려면 십자군 전쟁이 아니라 성경을 보아야 한다. 역사는 복잡하다. 그러나 800년도 더 전에 기독교의 가르침과 일관되지 않게 살았던 한 무리의 행동이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다음에 십자군 전쟁에 관해 대화하게 된다면,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십자군 전쟁은 아무런 도발도 없는 침략이 아니었다.”

“십자군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는 그리스도인의 손에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는 확신으로 움직였다.”

“십자군은 기독교의 기준이 아니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자유

진리를 외면한 자유의 역설



정승 성도
(마포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인간은 오랫동안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왔다. 과거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주로 신분제도, 차별적 관습, 불의한 정치 체제와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억압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오늘날 자유의 범주는 더욱 확장되어 성과 자아정체성, 자기결정권, 나이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내면과 삶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화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나’에게 몰입하며 완전한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절대적인 진리와 전통적 기준을 거부하고, 개인의 감정과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한 자유의 확대는 역차별과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며 서로의 자유가 충돌하는 허점과 모순점을 낳게 되었다.

현대의 왜곡된 자유가 실패한 결정적인 이

유는 자유에 내포된 ‘책임’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억압과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얼핏 완전한 자유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은 책임이다. 자신의 권리에만 매몰되어 누군가에게 무한한 존중과 이해를 요구할 뿐,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 왜곡된 자유의 결과는 서로를 경계하며 고립되도록 만들었다.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의 죄 된 본성에서 비롯된 타락한 욕망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해 할 갈망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신을 숭배하고, 세상을 탐하는 정욕으로 왜곡되었다. 세상은 죄 된 본성에서 비롯된 타락한 욕망마저 순수한 인간의 본성으로 둔갑시킨다. 그리하여 개인이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실현하고 주장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그 방종함을 합리화한다. 이러한 방종을 자유와 평등, 인권과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타인과 사회에 무조건적인 인정과 지지를 요구한다. 인간의 욕망에 걸림돌이 된다면 선악, 옳고 그름의 기준을 없애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온전한 자유에 이르려 하지만, 그럴수록 통제 능력을 상

실한 채 왜곡된 욕망의 노예가 되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가정의 해체, 낙태, 중독, 젠더갈등, 극단적 이기주의로 서로를 경계하는 불안하고 우울한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명상, 참선 등으로 인간 내면의 모든 사욕을 비워 ‘해탈’이라는 자유에 이르고자 한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도, 모든 욕망을 완전히 비워낼 수도 없다. 존재의 근원을 지우는 방식으로서는 참된 자유에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의 욕망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욕망의 방향은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배고픔을 알았기에 주린 배를 채우시고, 고통을 알았기에 치유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욕망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인간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으로 무한히 욕망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공허함이 존재한다. 그 빈자리는 본래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쾌락으로

도 대체할 수 없다. 인간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뿐이다.

진정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책임이 빠진 자유는 방종에 불과하며, 방종은 결코 개인도, 사회도 자유롭게 만들 수 없다. 문제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와 삶의 무게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결코 스스로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없다. 이를 부정하고 회피하기 위해 세상은 진리로부터의 해방이 자유라 말하지만, 성경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말한다(요 8:32).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된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럴듯한 표어와 달콤한 사조로 포장된 세상의 왜곡된 세계관에 휩쓸리지 않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를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 연재 순서 1. ‘돈’은 과연 축복인가? 2. 부채를 바라보는 성경적 시선 3. 투자인가, 투기인가? 4. 크리스천 투자 5대 원칙 5. 소비주의의 역행과 흘러보냄의 경제학

“어떻게 잘 벌고,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소비주의의 역행과 흘러보냄의 경제학



오종규 성도
(前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장, 법무사)

이번 기고의 최종 목적지이자 마지막 시험대에 다다랐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을 가장 집요하고 정교하게 지배하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인 ‘소비주의(Consumerism)’를 거슬러 ‘흘려보냄의 경제학’을 선택

하는 일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 체제를 넘어, 인간의 영혼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종교’처럼 작동한다. 이 소비주의 종교의 핵심 교리는 명확하다.

“너의 존재 가치는 네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소비하는가에 따라 증명된다.”

미디어와 대중문화, SNS는 연일 우리에게 속삭인다. 당신이 타는 차의 브랜드가 당신의 가치이고, 당신이 사는 아파트의 평수가 당신의 성공 크기이며, 당신이 걸친 명품이 당신의 자존감이라고 말이다. 이러한 소비주의는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결핍’과 ‘불만족’을 주입한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돌아서면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고, 남들의 화려한 소비 이면을 보며 내 평범한 일상을 초라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 소비주의의 쳇바퀴에 갇히는 순간, 기독교인 역시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밑 빠진 독처럼 소비의 크기를 키워나간다면 우리는 결코 맘몬의 결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소비주의의 거짓 복음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물질을 내 만족을 위해 쌓아두는 것을 넘어서서 가난한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 거침없이 ‘흘려보내는’ 성경적 나눔의 경제학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진짜 풍요와 자유로 인도하는지를 나누며 여정을 마무리한다.

결핍의 악순환 ‘현대 소비’

소비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인간의 영적이고 심리적인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기 때문이다. 과거의 소비는 생존을 위한 ‘필요(Need)’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현대의 소비는 나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기호와 정체성의 소비’로 변질되었다.

그 첫 번째 증상은 ‘과시적 소비’와 ‘비교 의식’이다. 현대인들은 물건의 기능 때문이 아니라, 그 물건이 주는 ‘사회적 시선’을 구매한다. 무리해서 수입차를 타고, 감당하기 어려운 명품을 소비하는 이면에는 ‘나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나도 이 정도 계층에 속해 있다’는 깊은 비교 의식과 열등감이 숨어 있다.

두 번째 증상은 ‘보상 소비’와 ‘내면의 공허함’이다. 일터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날,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쓸 수 있어’라며 시도하는 충동적인 소비를 흔히 ‘보상 소비’라고 부른다. 그러나 물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쾌감은 지극히 일시적이다. 쇼핑백을 들고 문을 나서는 순간의 도파민이 가라앉으면, 내면의 영적 공허함은 이전보다 더 깊은 갈증으로 찾아온다. 성경은 이러한 소비주의적 삶의 결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전 5:10).

이처럼 맘몬이 지배하는 소비주의 체제는 우리에게 결코 ‘만족’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더 많이 소비할수록 더 큰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 정교한 올무다. 내 삶의 소비 규모를 내 의지로 통제하지 못하고, 유행과 타인의 시선에 이끌려 돈을 쓰고 있다면 통장 잔고 크기와 상관없이 이미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상품 형식과 인격 형식

기독교 사회학자 존 F. 캐버너는 그의 저서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이 현상을 더욱 날카롭게 해부한다. 그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단순한 경제 체제를 넘어 우리의 생각과 문화를 지배하는 강력한 ‘세계관’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회의 가장 큰 영적 질병을 ‘상품 형식(Commodity Form)’으로 규정한다. 상품 형식이란 ‘세상 모든 것을 사고팔 수 있는 물건(상품)처럼 취급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뜻한다. 캐버너는 이 우상숭배적 세계관이 세 가지 파괴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경고한다.

첫째, 모든 것에 ‘가격표’를 붙인다. 상품 형식의 지배를 받는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인간적 가치까지 전부 시장 가치(돈)로 환산한다. 시간, 예술, 학문, 심지어 인간의 신뢰와 사랑까지도 ‘이것이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가?’, ‘나에게 무슨 이익을 주는가?’라는 손익계산서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둘째, 인간을 ‘상품화’해서 영혼을 소외시킨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인간의 존재 가치마저 상품처럼 취급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그 자체로 존엄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지(스펙, 연봉, 외모, 자산 등)로 평가한다. 나 자신을 끊임없이 ‘마케팅’해야 하는 상품으로 여기게 만들고, 타인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나에게 유용한 상품(도구)인가?’라는 계산을 하게 만든다.

셋째, 물질이 인격을 갖는 ‘우상숭배’로 귀결된다. 사람은 물건 취급을 받는데, 물건은 마치 인격과 신성을 가진 것처럼 숭배받는다. 자동차, 가방, 아파트 같은 상품들이 단순한 기능을 넘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줍니다’, ‘나에게 진짜 자유와 행복을 줍니다’라며 구원자 노

릇을 한다. 존 캐버너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정교하고 현대화된 ‘우상숭배(Mammonism)’의 본질’이라고 짚어낸다.

존 캐버너는 소비주의의 성경적 대안으로 ‘인격 형식’을 제시한다. 그는 “세상과 사람을 돈이나 상품의 잣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 ‘인격(Person)’ 그 자체의 가치로 바라보고 대하는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소비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얼마짜리 상품이나”라고 물을 때, 인격 형식은 “너는 그 자체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선언한다.

세 가지 영적 무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강력한 소비주의와 상품 형식의 세계관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의 경제적 자유를 선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소비주의를 역행할 세 가지 강력한 영적 무기를 제시한다.

첫째, ‘자족’이다. 소비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족의 영성’이 필요하다. 자족은 무조건 아끼고 굶는 율법주의적 금욕주의가 아니다. 내 삶의 소유와 환경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 이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현재의 형편 안에서 최고의 감사를 고백하는 영적 실력이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일체의 비결’이 바로 자족이다. 자족하는 사람은 세상이 유행을 만들고 소비를 충동질할 때, ‘이것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Need)인가, 아니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탐욕(Greed)인가’를 냉정하게 분별할 수 있다. 자족이 내면화된 그리스도인은 소비의 크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적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다.

둘째, ‘단순한 삶’이다. 외형적인 삶의 양식을 단순하게 정돈하는 ‘단순한 삶(Simplicity)’의 훈련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소유를 넓히고 물건을 쌓아두라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 집중하라고 요청한다. 우리는 SNS로 보이는 삶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삶의 양식이 단순해질 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재정은 비로소 사치와 낭비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쓰일 준비를 갖추게 된다.

셋째, ‘거룩한 누림의 균형’이다. 우리가 소비주의를 역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적 즐거움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정직하게 번 소득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일이나, 열심히 일한 영혼과 육체를 위해 휴식과 여행을 선택하는 행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향유하는 기독교인의 건강한 삶의 모습이다. 성경은 가족을 돌보는 것을 믿음의 마땅한 도리이자 책임이라 가르치며

(딤후 5:8),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전 2:24)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성경적 소비의 핵심은 ‘균형’이다. 나를 충전하고, 가족을 돌보는 ‘거룩한 누림’은 감사함으로 취하되, 내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탐욕적 사치’는 과감히 쳐내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거룩한 안식이 있는 소비는 우리를 풍성한 청지기로 세워준다.

하나님 나라의 유통 경제학

자족과 단순한 삶을 통해 소비의 규모를 줄이고, 재정의 여유를 확보했다면 이제 자본주의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가장 위대한 경제적 도약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흘려보냄(나눔)의 경제학’이다.

성경이 말하는 재물의 원리는 세상의 상식과 완전히 다르다. 재물은 고인 물과 같아서 한곳에 모아두고 나만을 위해 움켜쥐면, 반드시 썩고 냄새가 나며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막지 않고 낮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보내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생명수가 된다(잠 11:25). 이것이 세상의 자본주의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유통 경제학’이다. 세상은 많이 움켜쥐고 쌓아두어야 안전하고 풍요롭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흘러보낼 때 비로소 참된 풍요와 하나님의 신실한 채우심을 경험한다고 선포한다.

지난 5회 동안 치열하고도 거룩한 영적 여정을 걸어 왔다. 우리는 결국 처음 던졌던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잘 벌고,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신앙적 답을 내려야 한다.

‘어떻게 잘 벌 것인가’의 답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청지기 의식’에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탐욕이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기회를 극대화하며 세상 속에서 최선의 탁월함을 발휘해야 한다(Gain all you can).

‘어떻게 잘 쓸 것인가’의 답은 자족과 거룩한 흘러보냄에 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주신 물질을 가족과 감사함으로 건강하게 누리되, 움켜쥐지 않고 가난한 이웃과 사명을 향해 거침없이 흘러보내는 것이다(Give all you can).

세상의 조급한 소비 속도전을 거부하고, 통장의 숫자가 나를 증명한다는 자본주의의 거짓 속삭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라. 이 글을 읽은 모두가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통치 대리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어떻게 잘 벌고,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한 삶의 고백을 통해 날마다 바늘귀를 통과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한다.

특집

토요주일예배의 신학적 가능성에 관한 소고(小考)

최근 일부 유튜버들에 의한 ‘토요주일예배’를 비판하는 영상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보다 논리적인 설명을 해드려야 할 필요가 생김으로써 짧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 주간의 첫째 날(일요일)을 주일로 지켜 온 깊은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와 더불어 토요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논의의 중심은 기독교 역사가 후스토 곤잘레스가 〈일요일의 역사(A Brief History of Sunday)〉라는 책을 통해 정리한 역사적 사실과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기독교강요〉에서 제4계명을 다룬 내용에 기초를 둡니다. 보고서의 목표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규범성과 우선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많은 성도가 말씀과 성례의 공적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 모임을 토요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떤 신학적 근거 위에 설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재훈 위임목사

I. 개념 구분의 필요: 안식일과 주일은 같지 않다

이 주제를 둘러싼 혼란의 뿌리는 대개 ‘안식일’과 ‘주일’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성경과 신학은 이 둘을 구별한다. 안식일은 창조의 일곱째 날에 뿌리를 둔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렛날에 안식하셨으므로, 사람도 일에서 손을 떼고 창조주의 안식에 동참하라는 ‘쉼’의 날이다. 그 시선은 완성된 첫 창조를 뒤돌아본다.

반면,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뿌리를 둔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교회는 그 첫째 날에 모여 부활을 기념하고, 새 창조의 첫 열매를 경축한다. 그 시선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창조를 내다본다. 안식일은 쉼과 창조를 고백하고, 주일은 거기에 부활을 더하여 고백한다.

개혁주의 신학자 폴 K. 주이트(Paul K. Jewett)는 〈주일의 참뜻〉(The Lord's Day)에서 이 점을 예리하게 다루었다. 그는 부활의 날을 가리킬 때 신약이 쓰는 독특한 표현, 곧 ‘안식일의 첫째’(mia tōn sabbatōn)라는 어법에 주목한다. 이는 ‘안식일을 기점으로 헤아린 순서에서 첫 번째 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주일이 안식일을 단순히 다른 요일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구별되는 별개의 부활 기념일임을 드러낸다. 주이트의 해석에 의하면, 일곱째 날이 첫 창조의 완성을 표한다면 첫째 날은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의 승리를 표한다. 안식일과 주일은 이렇게 서로 다른 신학적 무게중심을 가진다.¹

이 구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안식일이 ‘쉼’에 관한 영속적 도덕계명이라면, 주일은 그 쉼의 약속을 부활의 빛 아래서 누리는 교회의 공예배일이다. 둘을 혼동하면 정반대의 두 오류가 생긴다. 하나는 주일을 옛 안식일의 율법 그대로 엄격히 묶어 버리는 율법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주일을 부활과 무관한 한낱 휴일로 가볍게 여기는 세속화다. 특히 안식일과 주일을 뒤섞어 ‘토요일이야말로 하나님이 명하신 참된 예배일’이라고 주장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입장이 전자의 극단을 보여 주는데, 본 보고서가 제안하

는 토요 공예배는 바로 이와 정반대 지점에 서 있다. 이 차이가 왜 결정적인지는 뒤에서 다시 밝힐 것이다.

II. 논의의 범위

논의 초점이 어긋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주장하지 않는지가 흐려지는 데 있다. 그러므로 다음 네 가지를 먼저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첫째, 본 입장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안식교적 주장, 곧 토요일이야말로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이라는 논지와는 정반대 지점에 서 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의 공예배를 토요일을 포함한 회집 가능한 시간으로 확대하는 일이다.

둘째, 본 입장은 일요일에 지키는 주일을 폐기하거나 격하하지 않는다. 일요일은 여전히 교회의 규범적이고 으뜸가는 예배일로 존재해야 한다. 토요 공예배는 그 주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의 날을 사는 또 하나의 입구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본 입장은 2천 년 전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오랜 전통은 그 자체로 큰 무게를 지니며, 함부로 바꿀 일이 아니다. 다만 ‘오래된 전통’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에 대한 존중이 곧 후자에 대한 복종과 같은 것은 아니다. 바로 이 구별이 본 논의의 핵심이다.

넷째, 본 입장은 모든 교회가 토요 공예배를 도입해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이 아니다. 한 지역 교회가 목회적 분별과 필요 속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가능하고 정당한가를 묻는 것이다.

III. 사실 관계 정정: 콘스탄티누스 발언의 정확한 의미

일부 유튜버는 이재훈 목사가 ‘콘스탄티누스가 주일을 만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재훈 목사는 그러한 주장은 한 적이 없다. 정확한 진술은 콘스탄티누스가 321년 칙령으로 일요일을 공적 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교회 역사의 공예배의 양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상 처음 일어난 공휴일 지정이라는 사회적 변수가 예배 시간과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는 역사적 사실의 진술이다.

기독교 역사가 후스토 곤잘레스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모임을 안식 계명과 연결 짓지 않았고,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일요일이 휴일이 되자 비로소 어떤 일이 합당한지를 규정하는 시민법과 교회법이 뒤따랐고, 그제야 일요일이 안식일의 쉼 및 그 계명과 결부되기 시작했다.²

IV. ‘주의 날’은 안식일의 대체가 아니라 부활의 별도 기념일이다

신약의 증언과 초기 자료를 함께 읽을 때 드러나는 첫째 사실은 주의 날이 안식일을 대체한 날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별개의 날로 시작되었다. 곤잘레스는 적어도 4세기까지도 일부 혹은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다음 날 주의 날을 따로 지켰다고 정리한다. 즉 첫째 날의 주의 날은 안식일의 ‘대체’가 아니라 부활을 별도로 축하하는 날이었다.³

둘째 사실은 회집 시간의 유동성이다. 〈사도행전〉 20장 7절의 모임은 ‘그 주간의 첫날’ 밤중에 이루어졌다. 유대적 하루 계산이 해 질 녘에서 해 질 녘까지였음을 기억하면, 이 모임은 사실상 토요일 저녁에 시작된 셈이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은 ‘첫 날’의 연보를, 〈요한계시록〉 1장 10절은 ‘주의 날’이라는 명칭을 보여 준다. 〈디다케〉 14장, 이그나티오스의 〈마그네시아인들에게〉 9장, 〈바나바서〉 15장,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제1변증서〉 67장은 첫날 회집을 증언한다.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자료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바가 ‘달력의 어느 날’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라는 점이다. 곧

1. 폴 K. 주이트, 『주일의 참뜻』 Paul K. Jewett, The Lord's Day: A Theological Guide to the Christian Day of Worship(Grand Rapids: Eerdmans, 1971). P. 75.
2. González, A Brief History of Sunday, 41–45. 곤잘레스는 콘스탄티누스의 321년 입법이 그리스도인과 태양신(Sol Invictus) 숭배자 양편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의도적으로 모호한’ 조처였으며, 이 휴일 지정 이후에야 비로소 주일이 안식 계명과 결부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3. González, A Brief History of Sunday, 23. 곤잘레스는 적어도 4세기까지도 일부 혹은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 주의 날을 따로 지켰다고 정리한다.
4. 사도행전 20:7(밤중 모임, 유두고 사건), 고린도전서 16:2, 요한계시록 1:10(κυριακή, ‘주의 날’), 디다케 14장, 이그나티오스 『마그네시아인들에게』 9장, 바나바서 15장, 순교자 유스티누스 『제1변증서』 67장. 유스티누스의 증언이 고정된 주일 회집에 관한 가장 분명한 초기 자료로 평가된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말씀을 듣고, 떡을 떤 때,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이다. 주의 날을 규정하는 본질은 그 시간에 있지 않고 그 내용에 있다.

셋째 사실은 ‘날의 계산’이다. 〈창세기〉1장 5절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어법과 〈레위기〉23장 32절의 ‘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정이 보여 주듯, 성경 시대의 하루는 해 질 녘에 시작한다. 〈사도행전〉20장 7절의 ‘그 주간의 첫날’ 밤 모임도 바로 이 계산법 위에서 있다. 주목할 것은 ‘토요일 저녁’이 이미 ‘주의 날’에 속할 수 있다는 이 발상이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도 결코 낯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청교도와 개혁파 신학자들은 주일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나는가를 두고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편에는 자정부터 자정까지로 보는 다수설이 있었다. 토머스 빈센트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해설에서 주일을 예비하는 일은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되나 주일 자체는 자정이 지나서야 시작된다고 보았고, 토머스 리즐리도 대요리문답 주석에서 주일이 자정 직후에 시작되어 다음 자정까지 이어진다고 정리하였다. 이들은 〈사도행전〉20장의 모임에서 바울이 한밤중까지 강론하고 ‘이튿날’ 떠났다는 기록을 자정 종료의 근거로 삼았으며, 1656년 영국 의회는 이러한 흐름에 기초하여 주일을 토요일 자정부터 일요일 자정까지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한편에는 저녁부터 저녁까지, 곧 토요일 해 질 녘부터 주일이 시작된다고 본 견해가 있었다. 토머스 셰퍼드는 〈안식일에 관한 명제들〉(Theses Sabbaticae)에서 유대인의 안식일이 ‘저녁부터 저녁까지’였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주일도 같은 시간대를 품어야 한다고 논증하였고, 존 코튼 역시 같은 입장을 글로 옹호하였다. 이러한 저녁 계산법은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존 오웬은 이 논쟁 자체를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그리 중대하지 않은 문제’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어느 편에 서든, 한 가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다수설조차 토요일 저녁을 주일을 예비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보았고, 저녁 계산법은 그 저녁을 아예 주의 날의 한 부분으로 끌어안기도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토요일 저녁의 예배가 곧 ‘주의 날’의 예배에 잇닿아 있다는 것은 결코 낯선 발상이 아니다.⁵

주일 성수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정한 청교도적 전통에서도 일부 그 가능성이 열려있던 논의였다.

V. 초대교회사의 증언: 형식은 형편을 따라 정해졌고, 고정은 후대의 산물이다

곤잘레스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주일 성수의 ‘형식’이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실용적으로 정해졌음을 역사적으로 밝힌 데 있다. 초기 신자들은 허락되는 한 안식일에 유대인과 함께 모였고, 동시에 해진 뒤(유대적 계산으로는 이미 다음 날인 첫날) 따로 떡을 떤다는 관습을 세웠다. 이후 모임 시간이 저녁에서 동트기 전 이른 아침으로 옮겨진 일차적 이유는 신학적 원리가 아니었다. 이방인 신자 다수가 종, 고용인, 피보호자로서 시간을 스스로 사용할 수 없는 신분이었기에, 일과가 시작되기 전 새벽에 모이는 편이 현실적이었던 것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일주일의 첫째 날에 예수를 기억하며 떡을 떤기 위해 모였다는 증거가 수두룩하다. 하루가 일몰에 시작하여 일몰에 끝났고, 초대교회 신자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으므로, 한 주간의 첫째 날 일찍 떡을 떤다는 일은 아마 안식일 해가 진 다음에 했을 것이다. 유대인의 계산으로는 안식일에 해가 지고 난 후인, 우리에게서 토요일 저녁에 해당하는 시간이 한 주간의 첫째 날이었을 것이다.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떡을 떤다는 일이 똑같이 밤에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한밤중을 지나서 해가 다시 뜨기 전에 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은 저녁보다는 해 뜨기 전이 이방인들이 맡은 일에서 빠져 나와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더 적은 때였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일곱째 날 한밤중부터가 일주일의 첫째 날이었기 때문이다.⁶

여기서 ‘어느 날을 주일로 지키는가’를 둘러싼 역사적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세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토요일)과 주의 날(첫째 날)을 동시에 품었다.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에 회당과 성전의 자리를 지켰고, 그와 더불어 안식 후 첫날에 따로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떡을 떤었다. 곧 한동안은 토요일의 안식일 준수와 일요일의 부활 기념이 나란히 공존한 것이다.

이러한 공존은 지역에 따라 적어도 4세기까지 이어졌다. 시간이 흐르며 무게중심은 점차 첫째 날로 옮겨 갔다. 그 이유는 신학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이었다.

신학적으로는 이방인 신자가 늘면서 유대적 안식일 율법과의 거리가 멀어졌고, 부활을 기념하는 첫째 날의 의미가 교회의 정체성으로 깊이 자리 잡았다.

현실적으로는 첫째 날 모임의 시간이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으로, 다시 콘스탄티누스의 휴일 지정 이후에는 일요일 낮으로 옮겨 가며 안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교회의 주된 예배일은 일요일로 굳어졌고, 이 흐름은 이후 2천 년 동안 교

회의 큰 전통이 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 흐름의 성격이다. 일요일이 주된 예배일이 된 것은 부활을 기념하려는 교회의 합당한 분별과 오랜 역사적 정착 과정의 결과이지, ‘반드시 일요일에만 예배하라’는 성경의 명시적 말씀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일요일을 주된 흐름으로 깊이 존중하는 것과 그 날짜 자체를 신적으로 못 박힌 율법처럼 절대화하는 것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가 토요 공예배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리도 바로 이 구별 위에 있다.

회집일의 고정과 ‘주일=안식일’ 도식은 그 뒤에 찾아왔다. 곤잘레스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의 321년 입법은 그리스도인과 태양신 숭배자 양편을 함께 겨냥한 ‘의도적으로 모호한’ 조처였고, 이 휴일 지정 이후에야 일요일이 안식의 쉼 및 계명과 결부되었다. 중세의 누적된 입법은 일요일을 점차 랍비적 안식일 규정과 닮은 쉼의 날로 만들었고, 마침내 영어권 청교도주의에 이르러서는 ‘주일이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는 엄격한 도식이 완성되었다.⁷

그런데 곤잘레스의 책이 도달하는 결론은 도발적이다. 그는 21세기의 주일 신앙이 오히려 콘스탄티누스 이전 모델로 돌아갈 때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곤잘레스는 감리교 역사신학자로서 일요일을 규범적 예배일로 여전히 지지하며, 토요 예배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취하는 것은 어떤 결론이 아니라, 세 가지 분명히 확립된 역사적 사실이다.

(1) 주의 날은 안식일의 대체가 아니라 부활의 별도 기념으로 출발했다. (2) 그 회집의 시간과 형식은 신자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졌다. (3) ‘특정한 날을 안식일처럼 엄격히 고정하는’ 도식은 사도적 보편 유산이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이후 중세와 청교도 시대를 거친 후대에 일어난 발전이다. 토요 공예배의 가능성은 바로 이 세 사실 위에서 시작된다.

VI. 종교개혁 전통의 증언: 칼뱅과 대륙 개혁파

칼뱅의 제4계명 해석(〈기독교강요〉2권 8장 28~34절)은 본 논의의 신학적 척추와 같다. 칼뱅은 계명의 의식법적 부분, 곧 특정한 날에 매이는 영원한 그림자로서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되었다고 본다. 그러면서 그는 〈골로새서〉2장 16~17절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은 ‘날에 대한 미신적 준수를 철저히 피해야 한다’고 단언한다.⁸

칼뱅의 입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2권 8장 34절이다.

- 창세기 1:5(‘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와 레위기 23:32(‘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일을 지키라’); 유대적·성경적 하루 계산은 해질녘에서 해질녘까지다. 주일이 언제 시작되는가를 두고 개혁파·청교도 전통은 크게 두 견해로 갈렸다. 다수설은 자정부터 자정까지다. 토머스 빈센트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해설』에서, 안식일은 그 전날 저녁부터 예비하되 그 저녁이 다 지나고 자정이 넘어서야 비로소 시작된다고 보았으며, 바울이 한밤중까지 강론하고 ‘이튿날’ 떠난 사도행전 20:7,11을 들어 주일이 자정에 끝남을 논증하였다(Thomas Vincent, *The Shorter Catechism of the Westminster Assembly Explained and Proved from Scripture*, Banner of Truth 재간, 139~140쪽). 토머스 리즐리도 대요리문답 강해에서 주일은 해 뜨기 전 곧 자정 직후에 시작되어 다음 자정까지 이어진다고 정리하였다(Thomas Ridgley, *A Body of Divinity*, 제4계명 항목). 윌리엄 퍼킨스는 ‘아침부터 아침까지’로 보았고, 1656년 영국 의회가 주일을 토요일 자정부터 일요일 자정까지로 규정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반면 저녁부터 저녁까지, 곧 토요일 해질녘부터 주일이 시작된다고 본 견해도 분명히 실재했다. 토머스 셰퍼드는 『안식일에 관한 명제들』(Theses Sabbaticae, 1649) 제3부 ‘안식일의 시작’에서 유대인의 안식일이 저녁부터 저녁까지였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주일도 같은 시간대를 품어야 한다고 논증하였고, 주일이 아침에 시작된다는 주장이 요한복음 20:19의 첫날 ‘저녁’ 모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제59명제에서 검토하였다(The Works of Thomas Shepard, vol. 3). 매사추세츠 베이의 대표적 신학자 존 코튼도 같은 저녁 계산을 옹호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 저녁 계산법은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코튼의 구체적 전거와 에드워드 개인의 준수는 표준 전기·일차 자료를 한 번 더 대조해 두기를 권한다). 존 오웬은 히브리서 4:9~10을 다루는 안식일 논고(Exercitations Concerning a Day of Sacred Rest)에서 주일의 시작과 끝에 관한 이 물음을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자신이 보기에 그리 중대하지 않은 문제라 하여 깊이 파고들지 않고 판단만 짧게 밝혔다(The Works of John Owen, ed. Goold, 18:531).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8항이 요구하는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일상의 일을 정돈함’은 토요일 저녁의 예배를 주일 성수의 일부로 전제한다. 요컨대 토요일 저녁이 이미 주의 날에 잇닿아 있다는 이해는 성경의 하루 계산과 개혁주의 전통 자체의 한 견해가 함께 뒷받침하며, 시작 시점을 둘러싼 이 차이가 교회를 가르는 중대사로 다루어진 적은 없다.
- González, A Brief History of Sunday, 20–21. 회집 시간이 저녁에서 동트기 전 이른 아침으로 옮겨진 일차적 이유를 곤잘레스는 신학적 원리가 아니라 이방인 신자 다수의 사회·경제적 형편(종, 고용인, 피보호자로서 자기 시간의 주인이 아니었던 처지)에서 찾는다.
- González, A Brief History of Sunday, 86, 94, 104–118. 곤잘레스는 ‘주일=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는 엄격한 도식이 중세의 입법화를 거쳐 영어권 청교도주의에서 완성되었다고 본다. 영어에서 토요일(Saturday)이 ‘안식일(Sabbath)’과 어원적 연결이 없었던 우연도 일요일을 ‘안식일’로 부르기 쉽게 만든 한 요인으로 지적한다.
-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8.31. 칼뱅은 골로새서 2:16–17을 근거로 안식일을 ‘그림자 의식’으로 규정하고, 날에 대한 미신적 준수를 철저히 피할 것을 권한다.

그는 ‘일곱 중 하루’는 도덕법이고, ‘어느 날인가’는 의식법이라는 식의 절충적 구분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단지 유대인과 다르게 하려고 날만 옮겨 놓고는 그날에 여전히 같은 거룩함을 부여하는 태도에 대하여 칼뱅은 이렇게 지적한다.

‘이것은 날을 바꾸어 유대인과 다르게 하면서도 그날에 여전히 같은 거룩함을 마음으로 부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유대인에게 있던 것과 똑같은 날의 구별을 그대로 지나는 것이다.’⁹

그는 이미 앞 절에서 <로마서> 14장 5절을 들어 ‘한 날을 다른 날과 차별하는 것은 미신적’이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 곧 특정한 날 자체에 신비적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야말로 그가 경계한 미신이다. 칼뱅에게 한 날을 정한 것은 신적 명령에 매인 의식이 아니라, 규칙적인 회집을 확보하기 위한 교회 질서의 문제였다.

그렇다면 칼뱅은 왜 일요일을 유지했는가. 그의 대답은 분명하다. 옛사람들이 분별없이 주의 날을 안식일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회집을 위해서는 일정한 날을 정하는 일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칼뱅은 이렇게 묻는다.

‘종교적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모임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고 고정된 날이 배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 날을 정한 근거를 그는 이렇게 못 박는다.

‘미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합당하였으므로 유대인의 거룩한 날은 폐지되었고, 교회 안에서 품위와 질서와 평화를 지키는 일이 필요하였으므로 다른 날이 그 목적을 위하여 지정되었다.’

한 날의 선택은 신적 의식에 매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품위와 질서와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뜻이다.

칼뱅이 제4계명의 실천적 핵심으로 거듭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다. 우리 가운데 신앙이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거룩한 모임에 부지런히 나아가 예배를 돕는 외적 수단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칼뱅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대표되는 대륙 개혁파 전통은 뒤에 살필 영국 청교도·웨스트민스터 전통과 결을 달리한다. 대륙 개혁파는 주일을 ‘엄격한 안식일’로 규정하기보다, 말씀의 직무에 부지런히 나아가고, 악에서 쉬는 날로 해설한다. 칼뱅 자신이 제네바에서 특정한 날을 신적으로 고정된 안식일로 강제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했다는 사실은 본 논의가 종교개혁의 변방이 아니라 그 한복판의 한 정통 흐름 위에 서 있음을 보여 준다.¹⁰

VI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토요 공예배에 대한 가장 목직한 반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7항에서 온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적극적·도덕적·항구적 계명으로’ 이레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였고,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그것이 마지막 날이었으나 부활 이후에는 첫째 날로 바뀌어 ‘주일’이라 불리며, 이날이 ‘세상 끝 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속될 것’이라고 명시한다.¹¹ 이 입장은 가볍지 않다. 한국 장로교 주요 교단이 표준 문서로 채택한 신앙고백이며, 첫째 날을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신적으로 지정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짚어야 한다. 첫째, 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도식은 곤잘레스의 역사 서술이 보여 주듯 사도 시대의 보편적 유산이 아니라, 영어권 청교도주의에서 무르익은 특정 전통의 발전이다. 그 무게는 존중하되, 그것을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묶는 단일한 사도적 율법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둘째, 칼뱅과 대륙 개혁파라는 또 하나의 정통 개혁주의 흐름은 특정한 날의 고정을 신적 의식법이 아니라, 교회 질서의 문제로 보았다. 따라서 이 논쟁은 ‘정통 대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주의 안에 실재하는 ‘대륙 개혁파 대 영국 청교도’라는 오래된 강조점의 차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 차이는 개혁교회가 공인한 또 하나의 표준 문서 안에 또렷이 새겨져 있다. 대륙 개혁파의 대표적 신앙 표준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38주일 제103문답에서 제4계명을 이렇게 풀이한다.

‘하나님께서 제4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의 사역과 학교가 유지되는 것이며, 또한 내가 특별히 안식일 곧 쉬는 날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며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그리스도인답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평생토록 나의 악한 일에서 떠나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여, 이생에서부터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¹²

여기서 강조점은 분명하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특정한 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못 박는 대신, ‘쉬는 날’에 말씀과 성례의 공적 예배에 부지런히 나아가는 일과 평생에 걸친 영적 안식에 무게를 둔다. 곧 제4계명의 핵심을 날짜의 고정이 아니라, 예배의 내용과 영적 실재에서 찾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벨직 신앙고백, 도르트 신경과 더

불어 ‘일치의 세 표준’을 이루며, 수많은 대륙 개혁교회가 오늘날까지 공식 교리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정통 신앙고백이다.

웨스트민스터 표준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둘 다 개혁주의가 공인하는 표준이면서도, 제4계명을 두고 강조점을 달리한다. 웨스트민스터 표준은 첫째 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규정하여 날의 고정을 강하게 붙들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날의 고정보다 예배의 내용과 부지런한 회집과 영적 안식을 앞세운다.

그렇다면 한 교회가 이 두 정통 표준 가운데 어느 한쪽, 곧 대륙 개혁파의 흐름을 분별하여 따른다고 해서, 그것을 개혁주의에서 벗어난 일탈이라 부를 수는 없다. 그것은 정통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아니라, 정통 안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두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걷는 일이기 때문이다. 토요 공예배를 옹호하는 본 보고서의 자리도 바로 이 정통의 한 길 위에 있다.

VIII. 안식일 계명의 본질: 쉼의 도덕법과 예배 형식의 가변성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안식일 계명의 본질을 짚어야 한다. 제4계명은 본래 ‘쉼’에 관한 계명이다. 하나님이 옛세 동안 일하시고 이렛날에 안식하셨으므로, 사람도 일에서 손을 떼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쉬라는 것이다. 이 쉼의 명령은 한 민족이나 한 시대에 매이지 않고, 창조 질서에 뿌리내린 영속적인 도덕 계명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안식일의 영속성과 변화’를 다룬 설교에서 일곱 중 하루를 거룩히 구별한다는 ‘비율’은 변하지 않는 도덕법이지만, 그 하루가 어느 날에 어떻게 배치되는가 하는 ‘질서’는 시대를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¹³

바로 이 점이 본 논의의 핵심 신학적 전제다. 제4계명은 쉼의 도덕적 본질을 영구히 명령하지만, 공예배를 정확히 어느 요일 몇 시에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까지 주지는 않는다. 성경 어디에도 ‘주의 날의 공예배는 일요일 오전에만 드려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공예배의 시간과 방식은 신적으로 못 박힌 율법이 아니라, 교회가 신자들의형편과 시대의 변화를 따라 분별해 온 질서의 문제다. 초대교회가 형편을 따라 회집 시간을 옮긴 것도, 칼뱅이 한 날을 정한 근거를 교회의 품위와 질서와 평화에 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였다.

이 전제 위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하다. 일요일

-
9. Calvin, Institutes, 2.8.32–34. 본문에 옮긴 칼뱅의 직접 인용은 모두 이 대목에 근거한다. (1) 종교적 모임은 일정하게 정해진 고정된 날이 없으면 지킬 수 없다는 회집의 불가피성(2.8.32), (2) 미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대인의 날이 폐지되고 교회의 품위, 질서, 평화를 위해 다른 날이 지정되었다는 근거(2.8.33), (3) 날만 바꾸어 놓고 그 날에 같은 거룩함을 부여하는 것은 유대인과 똑같은 날의 구별을 지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경계(2.8.34) 및 로마서 14:5을 들어 ‘한 날을 다른 날과 차별하는 것은 미신적’이라 한 진술(2.8.33)이다. 칼뱅은 ‘일곱 중 하루’는 도덕법이고 ‘어느 날인가’는 의식법이라는 식의 구분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10. Calvin, Institutes, 2.8.32–3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8주일(주일을 ‘악에서 쉼’과 ‘말씀의 직무에 부지런히 나아가감’으로 해설)도 같은 대륙 개혁파의 결을 보여 준다.
1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7항.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는 매주의 첫째 날로 바뀌었고…세상 끝 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속될 것이다.’ 한국 장로교 주요 교단이 표준 문서로 채택하고 있다.
12.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8주일 제103문답. 본문 인용은 표준 영역본(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3)을 옮긴 것이므로, 공적 사용 시 독립개신교회·고신·합신 등에서 쓰는 한국어 표준 역본과 대조하여 확정하기를 권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은 벨직 신앙고백(1561), 도르트 신경(1618~19)과 함께 ‘일치의 세 표준’(Three Forms of Unity)을 이루는 대륙 개혁교회의 공식 교리 표준이며, 한국의 여러 개혁·장로교 전통도 이를 정통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인다. 안식일 이해에서 하이델베르크가 공적 예배와 영적 안식을 강조하는 반면 웨스트민스터 표준은 육체적 쉼과 날의 고정을 한층 엄격하게 규정한다는 강조점의 차이는 널리 인정되며, 특히 제4계명이 특정한 날을 따로 구별하도록 요구하는가의 문제에서 대륙 개혁파와 영국 청교도가 갈린다. 이 구분에 관한 표준 연구로는 R. J. Bauckham, “Sabbath and Sunday in the Protestant Tradition,” in D. A. Carson, ed., From Sabbath to Lord's Day: A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Investigation (1982)을 참조하라.
13. 조나단 에드워즈, ‘안식일의 영속성과 변화’(The Perpetuity and Change of the Sabbath). 고린도전서 16:1~2을 본문으로 한 세 편의 연속 설교로,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Banner of Truth) 제2권 93~103쪽에 실려 있다. 에드워즈는 제4계명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영원하고 항구적인 의무’라고 보아, 이레 중 하루를 거룩한 쉼과 예배에 구별한다는 도덕적 본질은 결코 폐지되지 않는다고 논증한다. 동시에 그는 그 거룩한 날이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옮겨졌음을 고린도전서 16:1~2과 사도행전 20:7,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끌어 내며, ‘첫째 날이 그리스도인에게 종교적 예배와 의무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짓는다. 곧 ‘일곱 중 하루’라는 비율은 변하지 않는 도덕법이지만 ‘어느 날인가’는 시대를 따라 옮겨질 수 있다는 구별이 그의 논증의 핵심이다.

을 주일로 지켜 온 2천 년의 흐름을 여전히 교회의 주된 길로 존중하며 그 우선성을 지켜 가되,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진 형제들을 정죄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목회적 필요를 따라 추가적인 가능성을 신중히 열어 가는 것이다. 토요 공예배가 엄격한 안식일관을 표준으로 삼는 개혁주의의 한 전통 안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더 넓은 성경의 증언과 기독교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는 결코 성경에 반하거나 교회사에 낯선 일탈이 아니라, 그 안에서 충분히 설 자리를 가진 하나의 정당한 가능성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모두가 이 길로 가야 한다는 강요가 아니라, 이것 또한 신학적으로 가능하다는 분별의 여지를 함께 인정해 달라는 청함이다.

IX. 현시대 적용

이상의 성경적·역사적·신학적 검토를 현재의 목회 상황에 적용하면, 토요 공예배의 확대는 다음과 같이 목회적 정당성을 가진다.

첫째, 원리의 직접적 계승이다. 칼뱅이 제4계명에서 끌어 올린 핵심 원리는 ‘신앙이 쇠하지 않도록 거룩한 모임에 부지런히 나아가라’는 것이었다. 주5일 근무제와 다변화된 현대의 생활 리듬 속에서, 토요일의 공예배는 일요일 한 시간대에 모이기 어려운 성도들까지 공적 예배의 자리로 불러들인다. 이는 더 적은 성도를 모으는 축소가 아니라, 더 많은 성도를 말씀과 성례 앞에 세우는 확대다. 곧 계명의 목적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충족시키는 길이다. 이 원리는 오늘날 세계 교회의 실제 모습에서도 뚜렷이 확인된다. 이슬람권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 사회의 공휴일인 금요일에 주일예배를 드리며,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지역에서는 목요일에 회집하기도 한다. 만일 오직 일요일만이 주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율법의 수준이라면, 우리는 그 성도들에게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일요일에 모여 예배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슬람권 교회가 금요일에 모이는 것은 그 사회의 휴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콘스탄티누스의 칙령으로 일요일이 휴일이 되면서 공예배의 양상이 바뀐 변화의 원리와 정확히 같다. 회집의 시간이 신자들의 형편을 따라 정해진다는 사실은 이렇게 시대와 지역을 가로질러 한결같이 드러난다.

같은 원리를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길은 분명해진다.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한 주에 이틀의 휴일이 주어진 사회에서는 공예배를 토요일까지 탄력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주일의 참뜻은 달력의 어느 한 칸, 곧 시간 그 자체를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 내용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직 특정한 시간을 지키는 것만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둥근 지구 위에서 그 주장은 일요일이라는 한 시간대에 드리는 예배만을 인정하신다는 말이 되고 만다.

그러나 뉴욕의 토요일 저녁은 이미 서울의 일요일 아침이다. 같은 순간이 지구의 한편에서는 토요일이고 다른 편에서는 주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은 시계가 가리키는 칸에 있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함께 드리는 예배의 내용에 있다.

둘째, 내용의 동등성이다. 토요 공예배는 일요일 공예배와 동일하게 말씀의 선포, 성례, 찬송, 기도, 성도의 교제로 구성된다. 주의 날을 규정하는 본질이 달력의 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그 내용에 있다면, 동일한 내용을 갖춘 토요 공예배는 ‘주의 날’의 예배라는 자격을 충분히 갖춘다.

셋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와의 분명한 차이이다. 이 차이는 본 보고서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이므로 거듭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안식교는 토요일이야말로 하나님이 명하신 참된 안식일이며, 따라서 토요일에 예배하는 것만이 옳고, 일요일 예배는 콘스탄티누스 이후 교회가 빠진 변질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토요일 준수는 구원과 직결된 절대적 율법이며, 특정한 날인 토요일 자체를 신적으로 고정된 유일한 예배일로 못 박는다.

이재훈 목사가 제안하는 토요 공예배는 이와 정반대 지점에서 있다.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이라 부르지 않으며, 토요일에만 예배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지 않으며, 더욱이 일요일 예배가 잘못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교회 역사적 전통에 따라 일요일을 주된 예배일로 존중하고, 그 우선성을 끝까지 지킨다. 우리가 토요일에 드리는 것은 안식일 준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동일한 주의 날의 공예배를 토요일까지 넓히는 일일 뿐이다. 안식교가 ‘토요일이라야 한다’며 날을 절대화한다면, 우리는 어느 날에 모이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내용이 본질이라고 본다. 두 입장의 거리는 단지 먼 정도가 아니라 방향이 정반대다.

그러므로 토요 공예배를 안식교적 주장과 같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은 사실 관계의 오해요 모함이다. 앞서 개념을 구분하며 밝혔듯, 특정한 날 자체를 절대화하여 그날에만 정당성과 구원이 있다고 보는 태도야말로 칼뱅이 ‘날에 대한 미신적 준수’라 하여 경계한 바이며, 그것이 안식교가 빠진 함정이다. 토요 공예배는 율법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어느 한 날을 절대화하는 일에서 벗어나 부활 예배의 내용을 더 넓게 여는 길이다.

넷째, 개혁주의 전통 안의 선례적 뒷받침이다. 토요일 저녁이 이미 주의 날에 속한다는 성경적 하루 계산은 가톨릭이나 정교회의 전례를 빌려 오지 않더라도, 개혁주의 자체의 토양 위에서 충분히 설명된다. 주일의 시작 시점을 저녁부터로 본 청교도와 개혁파의 한 견해가 그러하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성찬 절기에서 토요일이 온전한 ‘준비의 날’로서 말씀 선포와 공적 예배의 자리였던 오랜 관행이 그러하다. 토요 공예배는 이 오랜 시간 이해와 개혁주의 예배 실천의 연장선 위에 있다.¹⁴

X. 목회적 필요와 가능성

토요 공예배의 확대는 추상적 논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목회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적어도 다음 세 가지 필요를 짚을 수 있다.

첫째, 예배 공간의 청지기적 활용이다. 모든 성도가 같은 시간대에 모여야 한다는 전제를 내려놓으면, 예배당을 불필요하게 크게 확장하지 않고도 이미 주어진 공간을 훨씬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같은 공간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여러 차례의 공예배를 품을 때,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물을 키우는 대신 지금의 공간으로 더 많은 성도를 말씀과 성례 앞에 세울 수 있다. 이는 건축의 확장이 아니라 개념의 전환으로 얻는 청지기적 지혜다.

둘째, 일요일에 예배에 나오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배려다. 주일 당직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 의료와 돌봄과 공공 안전의 현장을 지키는 이들과, 사회적 책임 때문에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성도가 적지 않다. 토요 공예배는 이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고 동일한 말씀과 성례 앞에 설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을 연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이 쇠하지 않도록 거룩한 모임에 부지런히 나아가라는 제4계명의 목적을 도리어 충족시키는 길이다.

셋째, 감염에 취약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배려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처럼 면역이 약한 분들, 또는 감염의 위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밀집한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 회집 인원이 자연히 분산되는 토요 공예배는 이런 지체들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가장 연약한 양 한 마리를 끝까지 품으려는 목자의 마음이 여기에 담긴다.

그러므로 토요 공예배를 다른 교회의 성도를 빼앗아 오려는 전략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왜곡이다. 그 동기와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과 성례의 자리로 부르고 가장 연약한 지체까지 예배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 이는 교회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섬기는 목양적 돌봄의 문제다. 다른 교회를 향한 어떤 공격도, 성도를 옮겨 오려는 어떤 의도도 여기에는 없다.

XI. 결론

토요일에 드리는 공예배를 주일예배로 부르며 드리는 것은, 일요일 주일의 규범성과 우선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에서,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정당하게 시도될 수 있다. 이는 주의 날이 본래 부활의 기념이었고, 그 회집의 형식이 신자들의 형편을 따라 유동적이었다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특정한 날의 고정을 교회 질서의 문제로 본 칼뱅과 대륙 개혁파의 원리로 돌아가는 일이다.

2천 년의 일요일 전통은 깊은 존중을 받아 마땅하며, 토요 공예배는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 곁에 또 하나의 문을 여는 일이다. 같은 이유에서 우리를 비판하는 형제들의 안식일 이해 역시 개혁주의 안의 한 정통 흐름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우리가 변증하는 것은 ‘우리만 옳다’가 아니라 ‘이것도 신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의 날의 공예배를 토요일로 확대하는 것뿐이다. 이는 일요일-주일을 부정하지 않으며, 성경의 증언과 초대교회의 실제와 칼뱅의 제4계명 해석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엄격한 안식일관을 표준으로 삼는 개혁주의의 어느 전통 안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더 넓은 기독교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이는 성경과 교회사에 반하는 일탈이 아니라 그 안에 충분히 설 자리를 가진 하나의 정당한 가능성이다. 더 많은 성도를 말씀과 성례 앞으로 부르고, 가장 연약한 지체까지 예배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려는 단 하나의 목적이 이러한 시도를 지탱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14. 토요일 저녁이 이미 주의 날에 잇닿아 있다는 이해에 관하여는 본 보고서 IV장의 해당 각주를 참조하라. 창세기 1:5. 레위기 23:32의 하루 계산과 주일의 시작을 저녁부터로 본 청교도·개혁파의 한 견해에 더하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성찬 절기(communion season)에서 토요일이 온전한 ‘준비의 날’로서 말씀 선포와 공적 예배의 자리였던 오랜 관행이 그 근거가 된다. 레이 에릭 슈미트는 이 성찬 절기가 종교개혁 이후부터 19세기까지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앙의 중심 행사였으며, 식민지시기 미국으로 건너가 부흥운동의 모태가 되었음을 추적한다. 통상 나흘에 걸친 이 절기는 목요일 금식, 금요일 ‘질문의 날’, 토요일 준비, 주일 성찬, 월요일 감사로 이어졌고, 그 가운데 토요일은 설교와 공적 예배가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의 날이었다. 곧 토요일에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일은 개혁주의 예배 실천 안에 이미 오랜 선례를 가진다. 자세한 것은 Leigh Eric Schmidt, *Holy Fairs: Scottish Communion and American Revivals in the Early Modern Perio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후에 *Holy Fairs: Scotland and the Making of American Revivalism*, Eerdmans로 재간)을 참조하라.

NGO 미디어엑세스, ICMDA 세계대회 참가

기독교 의료 전문가들과 연구 성과 및 의료선교 경험 공유



제18회 ICMDA 세계대회.

국제 보건의료 플랫폼 NGO 미디어엑세스가 6월 30일(화)부터 7월 5일(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리는 제18회 ICMDA 세계대회에 참가했다.

전 세계 기독교 일반·치의학 분야 의사들의 단체인 국제기독교의사치과

의사회(ICMDA)가 4년마다 대륙을 오가며 개최하는 행사다. 전 세계 기독교 의료·치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 성과와 의료선교 경험을 공유한다. 2018년 인도, 2022년 탄자니아에 이어 올해는 대한민국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의사회(KCMDA)와 한국

기독교의료선교협회(KCMF)가 공동 주관했다. NGO 미디어엑세스 이재훈 이사장(온누리교회 위임목사)은 6월 30일 식전 행사에서 환영 인사를 했다. 같은 날 김병순 대표(NGO 미디어엑세스)는 각국 의료선교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NGO 미디어엑세스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가별 보건의료 현장과 선교 단체를 연결하는 협력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김병순 대표는 “ICMDA 세계대회는 전 세계 의료선교 주체들과 직접 교류하며 협력 관계를 넓힐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NGO 미디어엑세스는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GN 신규 콘텐츠 ‘믿어야 산다’

매주 월 CGN 풍당, 유튜브, TV 방영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이 지난 6월 29일(월) 신규 콘텐츠 ‘믿어야 산다’를 공개했다. ‘믿어야 산다’는 각자의 이유로 신앙의 열정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회복을 돕는 프로젝트다. 실제 사연 공모에서 선정된 3명의 출연자가 일상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밀착 코칭과 솔루션을 통해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을 담았다.

1화에서는 오랜 교회 봉사에도 신앙의 열정을 잃은 권사, 관계의 상

처로 신앙이 흔들리는 청년, 육아와 일상에 지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주부의 사연과 일상을 조명한다. 그들이 신앙의 열정을 잃게 된 배경을 진솔하게 보여주면서 총 10화에 걸쳐 전문가의 조언과 실제 삶의 변화를 계기로 신앙을 회복하는 여정을 그려낼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 자정 CGN 풍당, 저녁 5시 CGN 유튜브, 저녁 6시 50분 CGN 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 박지혜 기자

‘축볼과 스포츠선교 이야기’

공동체 리더십과 성도 등 31명 참석

스포츠전도팀이 ‘축볼(Tchoukball)과 스포츠선교 이야기’를 지난 6월 29일(월)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개최했다. 공동체 리더십과 체육계 종사자, 스포츠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 등 31명이 참석했다.

‘축볼과 스포츠선교 이야기’에서는 축볼 소개와 간증, 복음 전파 사례 등을 공유했다. 축볼로 이루는 공동체 연합 가능성과 스포츠 전도의

가능성 등에 대한 나눔과 축볼 체험도 했다.

박현 팀장(스포츠전도팀)은 “패스와 협력으로 진행되는 축볼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울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로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남현영 기자

7월 화요성령집회,

‘To The Ends Of The Earth’

7월 화요성령집회가 ‘To The Ends Of The Earth(온 세상 끝까지)’를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7월 7일 문장원 선교사 ‘증인이 되

리라’ (행 1:1~8), 14일 최대홍 목사 ‘성령을 따라가라’ (행 8:1~8), 21일 최성민 목사 ‘세상으로 나아가라’ (행 13:1~12), 28일 최성민 목사 ‘복음을 이어가라’ (행 28:17~31)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한동대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한동대학교에서 ‘2026 한동대학교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6일(일)부터 8월 15일(토)까지 한동대학교에서 ‘AI로 상상하고 영어로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2026 한동대학교 영어캠프는 2주(7월 26일~8월 8일)와 3주(7월 26일~8월 15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이다. 참가비는 2주 330만 원, 3주 400만 원이다. 7월 17일(금)까지 등록하면 참가비를 2주 과정 15만 원, 3주 과정 50만 원 할인해 준다. 참가신청은 한동대학교영어캠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054-260-3047

jchyun0621@handongedu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결과 공개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5월 실시한 2026 NGO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연 환산 기준 4억 3천여만 원(430,858,441원)을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신규 후원자 908명, 증액 후원자 134명, 일시 후원자 172명이 참여했다. 신규, 증액 후원 연 환산액은 3억 2천여만 원(326,620,140원), 일시 후원금은 1억 원 이상(104,238,301원) 접수됐다.

문의: 02-2271-2246

/ 홍하영 기자

‘나를 따르라’

온누리교회 간사수련회 113명 참석

2026 온누리교회 간사수련회가 지난 6월 30일(화)부터 7월 1일(수)까지 ‘나를 따르라’를 주제로 열렸다. 온누리교회 국내 13개 캠퍼스 간사 및 목회자 113명이 참석했다.

올해 간사수련회에서는 도착예배, 팀빌딩, 특별강의, 조이워십, 리더십 강의, 합심기도, 선교지 소개, 선물 나눔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도착예배 ‘헛되지 않는 수고’ (고전 15:58)를 주제로 오민 목사(양재 목

회행정), 특별강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치유의 원리’를 주제로 최용일 장로, 리더십 강의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과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을 주제로 이장로 장로, 선교지 소개 ‘인도 선교 소개’를 주제로 서병원 선교사가 했다.

권기윤 간사(IT지원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간사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홍하영 기자

제이홈-온누리울타리 특별 세미나

7월 19일 오후 5시 서빙고 두란노홀

‘제이홈-온누리울타리 특별 세미나’가 오는 7월 19일(일) 오후 5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신관 지하 1층)에서 ‘한 생명을 품는 믿음의 실천’을 주제로 열린다. 이종락 목사(주사랑공동체교회 담임목사, 베이비박스 설립, 한국입양홍보회 이사)가 강의한다. 입양, 가정위탁, 보육원 아동 결연,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참여 방법 등도 안내한다. 고아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하단 QR 코드로 하면 된다.

오창화 팀장(온누리울타리팀장)은 “온누리교회 더 많은 성도가 ‘고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립꿈누리어린이집 원아 모집

0~2세 영아 대상, 7월 15일부터 입소 대기 신청

온누리청소년센터에 구립꿈누리 어린이집을 9월 1일(화) 개원한다. 이에 따라 7월 15일(수)부터 30일(목)까지 입소 대기 신청을 받는다. 구립꿈누리어린이집은 온누리청

소년센터(용산구 이촌로 358) 1층에 마련된다. 모집 대상은 0세(2025년생), 1세(2024년생), 2세(2023년생) 영아다. 문의: 02-6953-5845

경기A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 ‘휘파람 패밀리데이’

가족과 친구, 이주민 등 전도대상자 75명 참석

경기A공동체가 지난 6월 27일(토) 오후 5시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맞춤형전도집회 ‘2026 휘파람 패밀리데이’를 개최했다. 가족과 친구, 동료, 안산M센터 소속 이주민 등 전도대상자 75명이 참석했다. 그중에서 36명이 결신했고, 10명은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기로 했다.

맞춤전도집회 휘파람 패밀리데이는 레크리에이션, 손편지 낭독, 간증 나눔, 황문규 목사(경기A공동체) 말씀 선포, 결신의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가수 이무송 집사가 사회를 봤고, 테너 박준석, 하모니카 연주자 최상미, 트럼펫 연주자 조소영, 가수 이철규와 김기숙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황문규 목사는 ‘주님 안에 머물러 보세요’ (요 15:4~5)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황 목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전도대상자 이선 씨는 “딸과 함께 왔는데 행사를 준비한 정성 어린 손길에서 따뜻한 진심을 느꼈다”면서 “오늘 교회 방문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고백했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장로칼럼

큰 자로 사시는 청춘 집사님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는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영적으로 성숙해서 큰 자로 사시는 청춘 집사님들이 많다. 이들 집사님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형통함을 구하며 매사 기도로 나아가신다. 형님 리더십으로 젊은 집사님들을 격려하고, 솔선수범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감과 소통을 이루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온유와 겸손으로 덕을 세우며 사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

독일 철학자 괴테는 “무용한 삶은 앞당겨진 죽음으로,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열정이 충만하여 근심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몸과 마음이 얼마나 건강한지, 소통이 얼마나 원활한지를 가능하는 기능적 나이(Functional Age)가 생물학적 나이(Biological Age)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마음은 말과 행동, 생각과 삶에 영향을 미친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첫 열쇠가 말이고,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신뢰를 얻는다. 어린이와 같은 순전함, 유연한 사고력, 기쁨을 얻고자 열정이 있는 한 아직도 청춘이고, 나이보다 젊게 사는 비결이 아닐까.

故 하용조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행한 과거를 끊어 버리는 것이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거듭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새롭게 변화되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신앙이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윤동주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80여 년 되었지만, 해마다 다시 태어나고, 날마다 다시 살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시인이 정말로 시인이 되려면 그 시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독자들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어야 한다. 그게 바로 윤동주이고, 김소월이다.

책을 읽거나 글 쓰기로 내 마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은 어떻게? 괴테는 파우스트의 입을 빌려 “모든 이론은 회색”이라고 했다. 하지만 책 읽기는 회색이 아닌 ‘충천연색의 경험’이라고 한다. 홀로 집에 앉아서도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세상을 그윽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놀 수 있어야 자유인으로 격상되고, 혼자 놀지 못한다면 영혼이 텅 빈 ‘허수아비 인간(The Hollow Men)’이 될 수 있다. 글쓰거나 책 읽기는 자기 자신과 만나는 지름길이다. 홀로 자신에게 집중할 때 ‘마음의 중심’이 영글어 간다. 마음자리가 차분해지면 시류(時流)에 휩쓸리지도 않는다.

글쓰기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지름길이다. 글은 혼란하고 무의미한 삶에 뜻과 질서를 부여하는 나침반이다. 한 자 한 자 눌러쓴 글은 하나뿐인 나의 자취를 세상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만인의 일기장이다. 누구라도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로이 펼칠 수 있다. 소셜미디어로 표현한 삶과 사유(思惟)의 조각들은 영원히 남는다. 시공간의 한계와 언어 장벽까지 뛰어넘는다. 책 읽기는 혼자 있어도 충만해지는 묘약이다. 읽기가 어려워 보여도 시작이 반이다. 에세이 읽기로 상쾌한 아침을 시작하는 거다.

큰 자로 사시는 집사님들이 날마다 청춘으로 살면서 다시 태어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청춘은 인생의 어떠한 시기가 아니라 저마다의 마음가짐이고, 열정이 있는 한 나이와 상관없이 그대는 아직도 청춘이다.

권사칼럼

그 힘은 성령님의 임재!

이미희 권사
(양재 병원전도팀장)

지난달 양재온누리교회 병원전도팀이 환우들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육체의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복음을 선물하는 ‘환우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

시작부터 장중을 압도하는 어떤 힘이 느껴졌다. 전날 밤 내린 비 때문에 많은 분이 오시기 어려울까 염려가 앞섰다. 그러나 우리는 행하실 일을 미리 감사드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이 시간이 축제가 되기를 기도했다. 당일까지 비 예보가 있었는데 점차 그쳤고, 초대 손님들이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로 모여 들기 시작했다.

행사장 입구에 펼쳐진 레드카펫 위로 한 분 한 분 귀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손녀가 밀어드리는 휠체어를 타고 오신 투석과 치매가 진행 중인 환우, 불과 며칠 전 들은 폐암 4기라는 소식에 먹먹한 마음으로 휴대용 산소통에 의지해 오신 환우와 그 아들 내외, 교회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뇌졸중 치료 중인 노년의 의사 부부, 그리고 미국 거주 중인데 한국에 잠시 나온 틈에 초대된 암 환우 부부까지, 저마다 깊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내 양재 화평홀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동안 견뎌야 했던 고통의 무게와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어만 했던 상한 마음들이 조용히 떠오르는 듯했다. 환우들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눈물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경험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고백이 흘러나왔다.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것이 이 위로와 격려였군요.”

사실 병원전도팀 팀장을 맡게 되었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많았다. 경험도, 능력도 부족했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서도 순종했던 것처럼, 나 역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뿐이다. 그러나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들을 연결하시며 인도해 주셨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고 계심을 그때 깨달았다. 때때로 나의 순종이 부족할 때면 하나님은 등 뒤에서 강한 힘으로 나를 밀어 주시곤 하셨다.

이번 힐링 콘서트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고독과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마주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손 내미시는 사랑의 초청이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병상에 있는 그 시간은 단절이자 멈춤이겠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멈춤이 멈춤이 아닌 특별한 시즌(season)인지도 모른다. 마치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했던 그 신비한 멈춤처럼, 이 시간 또한 하나님과 깊이 독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일지도 모른다.

이날 행사에는 아직 믿음이 없던 여섯 분의 환우를 포함해서 총 44명의 환우와 가족들이 모였다. 모든 분이 자연스럽게 영접기도에 동참했고, 콘서트 이후 두 분이 병상 세례를 받으셨다. 행사 시작부터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한 곳으로 이끌던 그 힘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였다. 성령의 능력, 그 불이 환우들의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세포 하나하나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것을 믿는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군대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환우들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군병으로 사용하실 줄 믿는다.

신앙에세이

정동윤 목사
(국제비서, POINT5 공동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 3:19b).

이 말씀 앞에서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다시 생각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과 씨름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찾으려 애쓴다. 어느 순간 흙 같은 존재인 내가 생명 없는 흙에서 생명과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서른한 살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갑상선 전절제 수술과 전이 부위 제거 수술, 여러 차례 후속 치료를 받았다. 그 이후 갑상선 호르몬 약에 의존하며 살면서 몸의 연약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여전히 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말해 주고 있었다. 그때마다 죽음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던 하나님의 질문을 떠올린다.

“동윤아, 죽음이 두렵니?”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남기 위해 애써 왔다. 마치 생명 없는 흙에서 생명을 찾으려는 사람처럼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인간의 수고만으로는 참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삶으로 배웠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심음과 추수의 질서가 계속될 것을 약속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 가운

데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신다는 증거이다. 동시에 모든 추수와 열매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 공동체가 생명 없는 수고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게 되었다. 열심은 있지만 열매가 없고, 노력은 많지만 소망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특히 <창세기> 3장 16절을 묵상할 때 큰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은 타락 이후에도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을 거두지 않으셨음을 보여 준다. 고통은 있지만 생명이 태어나고, 수고는 있지만 생명이 이어진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은 가장 힘들지만, 가장 고귀하고 복된 일이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내가 더 이상 흙에서만 소망을 찾지 않기를 원한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은 단지 육체적인 출산에만 머물지 않는다.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회개하고, 생명을 얻도록 돕는 것 또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룩한 사명이다. 육체는 날마다 약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진다.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성도들의 삶을 볼 때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금 깨닫는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이다.

“나는 흙으로 지음을 받아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죽음보다 큰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헛된 수고만을 붙들고 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낳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메마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함께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596호 | 2026년 7월 5일(일)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2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유현목 목사 (042) 825-3642-4 35224 대전시 서구 문산로 64 온누리빌딩 2-6층 • 남양주 변대섭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원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용인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김태용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서산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안경로 213 4층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박재영 목사1-619-847-4147 896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장정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li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01821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글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a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d-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 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A DAIA - 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1-4(1F&2F), 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베리트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승수	김태용	김승겸	김현실	김재석	김종아
유현목	변대섭	신동식	김승수	김승수	김태용	김승민	김재석	김종아	김태광
노희태	양재경	도육환	김태용	김태용	김태용	김태광	김현실	김재석	김종아
최영민									
☞부목사(전임)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도윤	김상수	김승겸	김현실	김재석	김종아
김한솔	김태영	김관수	김도윤	김상수	김승겸	김현실	김재석	김종아	김태광
김래위	김미정	김상규	김승겸	김현실	김재석	김종아	김태광	김현실	김재석
김선재	김성욱	김성중	김승겸	김현실	김재석	김종아	김태광	김현실	김재석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재석	김종아	김태광	김현실	김재석	김종아	김태광
김용산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종아	김태광	김현실	김재석	김종아	김태광
김재승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태광	김현실	김재석	김종아	김태광	김현실
김종호	김창호	김철희	김태광	김현실	김재석	김종아	김태광	김현실	김재석
김태완	김희정	김 현	김현실	김재석	김종아	김태광	김현실	김재석	김종아
김흥주	노치형	럼보영	김명재	김현실	김재석	김종아	김태광	김현실	김재석
민근홍	박근비	박성은A	박성은B	박정훈	박준양	박정훈	박준양	박정훈	박준양
박성원	박대영	박정훈	박준양	박정훈	박준양	박정훈	박준양	박정훈	박준양
박철웅	박대영	박정훈	박준양	박정훈	박준양	박정훈	박준양	박정훈	박준양
배행삼	배성우	서수민	송영동	신대중	송동주	송동주	송동주	송동주	송동주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대중	송동주	송동주	송동주	송동주	송동주	송동주
신원식	신주용	송준환	송동주	송동주	송동주	송동주	송동주	송동주	송동주
송재호	안대진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여성민	오 민	오현교	오현교	오현교
양진범	여성민	오 민	오현교	오현교	오현교	오현교	오현교	오현교	오현교
유진아	유현복	윤길중	윤파리아	윤파리아	이강현	이서진	이우람	이우람	이우람
윤이삭	윤현규	이강현	이서진	이우람	이우람	이우람	이우람	이우람	이우람
이기원	이비오	이상호	이서진	이우람	이우람	이우람	이우람	이우람	이우람
이세영	이세민	이성호	이우람	이우람	이우람	이우람	이우람	이우람	이우람
이윤재	이준호	이진기	이찬우	이환희	이환희	이환희	이환희	이환희	이환희
이환규	이형목	이호준	이환희	이환희	이환희	이환희	이환희	이환희	이환희
임동현	임용성	장동원	정선범	정선범	정선범	정선범	정선범	정선범	정선범
정재원	장재홍	장지훈	조동욱	조동욱	조동욱	조동욱	조동욱	조동욱	조동욱
전신익	전진	전재표	정동윤	정동윤	정동윤	정동윤	정동윤	정동윤	정동윤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연상	정연상	정연상	정연상	정연상	정연상
정현석	정희성	제지훈	조동욱	조동욱	조동욱	조동욱	조동욱	조동욱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은광	조현수	조현수	조현수	조현수	조현수	조현수	조현수
전선미	주하늘	최대홍	최성규	최성규	최성규	최성규	최성규	최성규	최성규
최성민	최용운	최재윤	최종현	최종현	최종현	최종현	최종현	최종현	최종현
최혁중	주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요시키	요시키	요시키	요시키	요시키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준희	해롤드킴	해롤드킴	해롤드킴	해롤드킴	해롤드킴	해롤드킴	해롤드킴
하원희	황문구	황유일							
☞전도사(전임)									
유석현	유현우	이예찬	장건우	장건우	장건우	장건우	장건우	장건우	장건우
최광호	홍근영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이기훈	조호영	조호영	조호영	조호영	조호영	조호영	조호영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김태용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서산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안경로 213 4층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박재영 목사1-619-847-4147 896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장정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li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01821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90024									
오세아니아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베리트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담임목사									
권영환	김도균	문봉주	문영재	박신웅	서재범	이길탁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아마	신이치	후쿠자와	마키토	김철진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심상현	이성권	이종재	정정철	김기홍	김명성	김상례	김상훈	김성근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항진	김정은	노경호	김창식	김항선	남진숙	박대원
노혜수	문성일	박대원	박미은	박종훈	박찬민	박현식	박현우	박효민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정욱	손미경	신기원	심재현	심형진	안성진	엄영기	유운상
유명중	유영순	이경호	이노우	에 마키	이덕주	이미경	이상원	이토 히로시	이형근
장이삭	장재용	전상현	전인성	전홍현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용원	박찬규	박찬규	박찬규	박찬규	박찬규	박찬규	박찬규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Onnuri Summer Bookcation

온누리썸머북케이션



순방학 중
신앙서적 읽고

→ 나의영성

UP

■ **대상:** 청년부 이상 온누리교회 모든 성인 성도

■ **방법**

- 서빙고 성도: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행사기간 중 대출한 도서 읽기
- 캠퍼스 성도: 서빙고 도서관대출 또는 행사기간 중 신규구매 도서 읽기

■ **일정**

- 7~8월중 독후감 접수
- 8월 23일 독후감 제출 마감 및 심사 개시
- 9월 6일 시상식 (청소년센터3층 도서관)

■ **제출:** 독후감은 200자 원고지 10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해야 함
(A4용지 제출시 글자크기 12폰트로 1,000자 이상 분량)

- 서빙고 성도: 도서관으로 직접 제출
- 캠퍼스 성도: 도서관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우편 접수시 마감기일(8월23일)전 도착분에 한함)

■ **시상:** 우수작 온누리신문 게재 및 소정의 상품 증정

온누리교회 도서관
02-3215-3110

